

# KIA-두산 숨막히는 1위 싸움 '빅뱅'



## 어? 선발이네

류현진, 24일 등판 예정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예상을 뒤집고 다시 한 번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다저스를 취재하는 앤디 맥클러프 기자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다저스의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선발은 리치 힐, 류현진, 클레이턴 커쇼”라고 적었다. 이 순서대로라면 류현진은 24일 샌프란시스코전과 홈경기에 선발 등판하게 된다. 이외의 등판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전날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는 남은 정규시즌 2주간 포스트 시즌 불펜 오디션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시즌은 물론이고 남은 정규 시즌에서도 류현진을 구원투수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현지 매체도 ‘다저스가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에게 포스트시즌 구원투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규시즌에서 대부분 선발을 맡은 류현진과 마에다로서는 사실상 ‘좌천’을 당한 셈이었다.

류현진을 갑자기 선발로 등판시키는 것과 관련한 로버츠 감독의 설명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23경기(22경기 선발)에 등판해 5승 7패, 평균자책점 3.46을 거뒀다. 후반기에는 9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36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연합뉴스



## 오! 완벽하네

오승환, 1이닝 무실점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13일 만에 등판해 1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견제를 과시했다. 오승환은 21일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방망경기에 8-2로 앞선 7회 말 마운드에 올랐다.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 탓에 지난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결장이 이어진 오승환은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얻었다. 오승환은 선두타자 호세 페라자를 3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패트릭 킬버리한을 상대로는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93.5마일(약 150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몸쪽 높은 코스에 던져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이어 타커 반하트까지 초구에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 세운 오승환은 공 8개로 이닝을 마쳤다. 빠른 공의 최고 시속은 94마일(약 151km)이었다. 이닝을 완벽히 마친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83에서 3.77로 떨어졌다. 세인트루이스(79승 72패)는 9회 초 1점을 더해 9-2로 승리하고 2연승으로 가을야구 희망을 이어갔다. 세인트루이스는 선발 루크 워버가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오승환을 포함해 불펜 투수 4명이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연합뉴스

KIA 헥터, 두산전 4경기 3승·평균자책점 3.24

상대 장원준도 KIA 3전승·평균자책점 3.93

누가 더 오래 버티나...수비싸움에 희비 갈릴 듯



KIA 타이거즈의 헥터와 두산 베어스 장원준의 어깨에 '1위'가 걸려있다. KIA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정규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벌인다. 시즌 내내 선두를 지키고 있는 '1위' KIA와 '디펜딩 챔피언' 두산은 올 시즌 7승 1무 7패로 팽팽하게 맞서왔다. 시즌 16차전에서 두 팀은 에이스를 선발로 내세워 팽팽한 균형을 추를 깨기 위해 도전한다. 사실상 1위 결정전이기도 하다. 현재 KIA와 두산은 각각 1.5게임 차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1위 전

쟁이다. 전반기가 끝났을 때만 해도 KIA의 질주를 막을 팀이 없어 보였다. KIA는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당시 2위였던 NC에 싸움이 3연승을 거두며 8경기 차 1위로 2017시즌 반환점을 돌았다. KIA의 전반기 승률은 57승 28패로 0.671을 기록했다. 여기에 전반기 선발이 맞지 않던 두산은 42승 1무 39패(승률 0.519)의 전적과 함께 5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KIA와는 무려 13경기 차였다. 하지만 후반기 두 팀의 엇갈린 행보에

예상치 못했던 1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KIA와 NC의 동반 하락세 속 두산이 2위로 치고 올라 1위까지 위협하고 있다. 후반기 KIA는 24승 1무 25패에 그치면서 5할 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두산은 28승 2무 16패의 질주를 하며 후반기 0.70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 시작과 함께 2연패와 2연승으로 다시 또 KIA와 두산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매직넘버가 7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장원준 역시 올 시즌 KIA전에 가장 많은 9경기를 치러야 하는 KIA와

6경기 남은 두산의 마지막 맞대결. 이 경기 결과에 따라 KIA는 매직넘버를 5로 줄이고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반대로 두산이 매직넘버 7을 두고 역전 우승의 꿈을 키울 수도 있다. 빅매치답게 마운드 대결도 흥미롭다. 두 팀 마운드를 대표하는 우완 헥터와 좌완 장원준이 세게 붙는다. 18승을 거두며 팀 동료 양현종과 다승 공동 1위에 랭크된 헥터는 두산전 4경기에서 3.24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쓸어들었다. 승리를 챙기지 못한 5월 19일 두산전에서도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임창용의 0.1이닝 5실점의 난조만 없었더라면 4전 전승을 이룰 수 있었을 정도로 헥터는 두산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장원준도 KIA 타자들 앞에서는 천하무적이었다. 장원준 역시 올 시즌 KIA전에 3차례 출격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KIA

전 평균자책점은 3.93이다. ‘승률 100%’의 곰 사냥꾼과 호랑이 사냥꾼의 대결인 만큼 마운드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승리투수와 패전투수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긴장감 가득한 경기가 예상되면서 수비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에도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비정상의 마운드로 우려를 산 KIA는 20일 SK전에서도 선발 자원이 임기영을 불펜으로 투입하는 1+1 전략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약수가 됐다. 적절한 대주자·대타 투입을 통한 화력 최대화에도 실패하면서 팬들의 실망이 더해졌다. 변칙적인 마운드와 세밀하지 못한 공격으로 확장 엔트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위를 놓고 전개되는 숨 막힌 승부. 헥터의 어깨가 무겁다. /김여울기자 wool@

##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한국적 세련미'

한글·한복 모티브... '선수들의 노력' 표현 역동적 사선 처리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달에는 민족의 정신을 담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이 주요 모티브로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대회 기간 평창을 빛낼 금·은·동메달을 공개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같은 시간에 공개 행사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달을 선보였다. 메달과 리본은 우리 문화의 상징인 한글과 한복을 주된 모티브로,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세련미'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달 앞면에는 올림픽 전통에 따라 좌측 상단에 오륜이 배치됐고, '선수들의 노력과 인내'를 표현한 역동적인 사선이 펼쳐진다. 뒷면에는 대회 엠블럼과 세부 종목명이 새겨졌다.



측면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공일팔'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 중 자음의 'ㅍ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입체감 있게 표현됐다. 메달의 지름은 92.5mm, 두께는 사선의 도드라진 부분과 파인 부분(압인)에 따라 최소 4.4mm에서 최대 9.42mm이다. 무게는 금메달이 586g, 은메달 580g, 동메달 493g이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순은(순도 99.9%)으로 제작하고, 금메달의 경우 순은에 순금 6g 이상을 도금하도록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을 준수했다. /연합뉴스

## '천하무적' 광주대 여자농구부

대학리그 챔피언결정전 수원대에 99-66 압승...2년 연속 통합우승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가 2017대학농구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승리, 2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국선경 감독이 이끄는 광주대 농구부는 21일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여대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 수원대와의 경기에서 99-6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광주대는 2017대학리그 정규리그(12경기)와 4강플레이오프(1경기), 챔피언결정전(2경기)에서 15연승으로 무패 우승을 기록했다. 광주대 강유림(2년)은 부상 속에서도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에서 40득점 30리바운드로 맹활약하는 투혼을 펼쳐 챔피언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이날 강유림은 25득점 11리바운드, 홍채린이 3점슛 3개 포함해 23득점 15리바운드로 2학년 듀오가 공격을 이끌었고 장지은(4년·17득점)과 김진희(3년·15득점 13도움)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를 도왔다. 지난 20일 수원대와의 1차전에서 75-58로 가볍게 승리한 광주대는 경기 초반부터 수원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선수들의 빠른 공수 전환과 안정된 볼배급으로 2쿼터까지 50-33으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홈팀 수원대의 반격에 3쿼터 중반 11점까지 추격 당했으나 홍채린의 순발력있는 수비와 장지은, 김진희 등의 속공이 잇따라 성공하며 승부에 쏠리게 되었다. 2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



2017대학농구 여대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한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 국선경 감독과 선수들이 21일 수원대학교체육관에서 대회 시상식 후 우승컵을 놓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